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전국장애인동계체전 道 5년 간 단독 개최	1
강원도민일보	23면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 증명, 지역경제 효과 기대"	1
G1방송	온라인	장애인동계체전 5년 강원 단독 개최 협약	2
강원도민일보	20면	경민현 본지 사장 도의회 방문	2
강원도민일보	20면	'건강한 100세 시대 실현' 도 노인회 힘 모은다	3
江原日報	27면	“회원들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노인회 위상 제고”	3
江原日報		횡성 우천 5일장 개장[1/2]	4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상임위 현지 시찰·연찬회·조례 심사	6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평창 스마트농업단지 방문	6
강원경제신	온라인	농림수산위원회 제326회 임시회 현지지찰 실시	7
문화매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지찰 실시	8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지찰 실시	9
스포츠서울	온라인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	10
강원신문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국...	11
신아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	12
스포츠서울	온라인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	13
스포츠서울	온라인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봄철 화재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	14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봄철 화재예방 및 취약...	15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선 고한구공탄시장 방문	16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사문위 조례안 심사	1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정선군바둑협회 사무실 겸 정선기원 오픈 행사	17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원제용 도의원	18
江原日報	27면	[동정] 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1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류인출 도의원	18
강원도민일보	01면	춘천교대 통합안 나왔다, 강원대와 추진 등 4안 제시	19
강원도민일보	01면	춘천 연장 GTX-B 노선 착공	20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역~서울역 55분' GTX-B 2030년 개통 목표 첫삽	20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화천댐 물 용인 공급 지역민 의사 고려해야"	2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지역특화 도시재생 33개 사업 806억원 투입	21
강원도민일보	02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강원땅 전국 0.9% 불과	22
江原日報	02면	김진태 지사, 도정 쇄신 구상 착수	22
江原日報	02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신청 의결	23
江原日報	05면	환경부 산하기관이 기준치 초과 방류수 '칼칼'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대병원 상급 승격 절박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올림픽 경기장 '돈 버는 하마'로	25
江原日報	25면	[사설] ‘첨단산업 육성·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옳다	26
江原日報	25면	[사설] 초교 입학생 1만명 선 붕괴, 지역 소멸 전조인가	27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전국장애인동계체전
도 5년 간 단독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한다.

강원자치도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도교육청, 도의회 등 4개 기관은 7일 강원자치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5년간 단독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강원자치도 일원에서 전국 장애인동계체전 전 종목 경기가 열린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방정기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다졌으며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찬기자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7일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스포츠 23면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7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신경호 도교육감, 김진태 도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권혁열 도의장)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 증명, 지역경제 효과 기대”

장애인동계체전 5년간 단독 개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단독 개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도의회, 도교육청 4개 기관은 7일 도청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을 비롯한 4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매년 2월 중 전 종목이 개최된다.

또한 도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회

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및 대회 운영 지원에 협력한다. 도의회 역시 대회 안정적 개최를 위한 재정 지원에 협력하며, 도교육청은 장애인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지원 및 대회 홍보에 협력한다.

이날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강원도는 장애인체육에 있어 특별한 곳이다. 강원도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도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가 동계스포츠 메카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예섭

2024년 03월 07일 (목)

강원

G1방송

장애인동계체전 5년 강원 단독 개최 협약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이어, 장애인 동계체전도 5년간 도내에서 단독 개최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7일) 도청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에따라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를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 20면



경민현 본지 사장 도의회 방문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신임 사장은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 권혁열 도의회 의장을 만나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 20면

‘건강한 100세 시대 실현’ 도 노인회 힘 모은다

홍천서 노인회 도연합회 정총

박현상·이용기 신임 감사 선출

창립 50주년 행사 11월 개최 확정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가 건강한 100세 시대 실현에 힘을 모은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7일 홍천축협 갈마로점에서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이건설 도노인회장과 노인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감사 선출권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임 감사로 박현상 춘천시지회 부회장, 이용기 동해시지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정기총회가 7일 홍천축협에서 열렸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4월 17일 인제에서 도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9월 양양에서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 대회를 연다. 강원도민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를 비롯해 도경로당프로그램 발표대회, 경로당 한바퀴, 세대동행 물고기대회 등도 추진한다. 도노인회 창립 50주년 행사는 11월 15일에 열기로 했다.

도노인회는 이날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결의문도 발표,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도노인회관을 건립해 자체 회의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올해 어르신 600여 명이 보조교사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강원형 늘봄학교’는 온 세대에 좋은 일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세대공감파크골프대회와 환경대회는 어린이들도 함께 한다. 어르신 권익 신장은 물론, 더 나은 강원 교육 실현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열 의장은 “경륜과 혜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힘이 되는 도노인회가 더 건강하게 도민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영재 군수는 “홍천에는 최고령자 115세 어르신을 비롯해 100세 이상 어르신이 27명 계시다. 이처럼 건강한 무궁화의 도시 홍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건설 회장은 “강원특자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어르신들의 숙제”라며 “100년을 이어가는 노인회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부각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형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 27면

“회원들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노인회 위상 제고”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가 올해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회 위상 제고에 나선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7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이건설 도연합회장과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연합회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올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회 권한사항 일부를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도연합회 감사 선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에는 박현상 춘천시지회 부회장, 이용기 동해시지회 부회장 등이 선출됐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제2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강원도 개최(9월 양양) △강원도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4월 17일 인제) △강원도노인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11월 양양) △도연합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제11회 도경로당프로그램 발표대회 △실버 스크린파크 토크쇼 △경로당 한바퀴 사업 △신박한 경로당 쇼츠 챌린지 사업 △경프 발전 지원사업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 이건설)는 7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 △동행 물고기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인의 위상을 높여 나가

로 했다.

이건설 노인회 도연합회장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사업을 신바람 나고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창립 50주

년을 맞은 올해를 발판 삼아 향후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노인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강원 어르신들의 행복, 건강,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천=하위운기자 hwy@

2024년 03월 07일 (목)

사회

江原日報

횡성 우천 5일장 개장

매 2,7일날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육성 예정
첫 개장식 주민, 관광객들 참여 성황



횡성 우천면 우천보건지소 일원에서 열리는 5일장이 7일 개장식을 가졌다.



횡성 우천면 우천보건지소 일원에서 열리는 5일장이 7일 개장식을 가졌다.



횡성 우천면 우천보건지소 일원에서 열리는 5일장이 7일 개장식을 가졌다.



횡성 우천면 우천보건지소 일원에서 열리는 5일장이 7일 개장식을 가졌다.



횡성 우천면 우천보건지소 일원에서 열리는 5일장이 7일 개장식을 가졌다.

횡성 우천면에서 5일장이 열린다.

우천면은 7일 우천보건지소 인근 우항1길 5-34 일원에서 첫 우천 5일장을 개장해 방문객을 맞았다.

개장식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과 최규만 도의원, 박광진 우천면이장협의회장, 진영식 우천상가번영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우천 5일장은 1일과 6일 열리는 전통시장 다음날인 2일과 7일에 열린다.

우천 5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수년간 준비해 온 것으로, 올해부터 우천상가번영회(회장:진영식)를 주축으로 본격 추진됐다.

진영식 회장은 "5일장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인 루지체험장과 연계해 외부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년 03월 08일 (금)

江原日報

종합 02면

도의회 상임위 현지 시찰·연찬회·조례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7일 강원도 1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제326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시찰, 연찬회, 조례 심사 등이 이어졌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이날까지 이틀간 원주, 평창 현지를 시찰했다. 원주 ㈜단정바이오통 방문, ‘도내 농특산물 그린바이오 소재개발 및 출원 특허 기술이전’ 사항을 점검했다. 원주 지정면에서는 내륙어촌 재생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창 스마트 농업단지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상황을 살폈다.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씨감자 생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도 이틀간 태백, 정선 일원에서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지난 6일 강원랜드, 태백산국립공원, 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해 발전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7일에는 고한구공단시장, 삼탄아

트마인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심오섭(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발의한 ‘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언어권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9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 20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평창 스마트농업단지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7일 ㈜그린플러스에 위탁한 평창 스마트농업단지와 평창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강원경제신문

농림수산위원회 제326회 임시회 현지시찰 실시

- 원주, 평창지역 농정·내수면 분야 사업추진상황 점검

강명옥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위원들은 제 32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정·내수면 분야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3. 6. ~ 3. 7. 2일간 원주, 평창지역 현지시찰을 실시하였다.

원주 호저면에 위치한 (주)단정바이오를 방문하여 2023. 8. 22. 강원특별자치도와 교류협력한 '도내 농특산물 그린바이오 소재개발 및 출원 특허 기술이전' 등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였다.

원주 지정면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받아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창의 스마트 농업단지에서는 (주)그린플러스로 위탁한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2024년 씨감자 생산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독려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김용복)은 농업·해양수산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1차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명성일보 등 77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3월 07일 (목)

정치

문화매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 실시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시설 현지 시찰

이등원 기자



▲ 경제산업위원회 상반기 연찬회 개최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태백시 및 정선군 일원에서 의정활동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3월 6일에는 강원랜드, 태백산국립공원, 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인 3월 7일에는 고한구공탄시장, 삼탄아트마인에 들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틀간의 현지시찰 동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장 상인, 지역 사업주,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사업체 및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도민들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03월 07일 (목)

시사일보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 실시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시설 현지 시찰

전영선 기자



▲ 경제산업위원회 상반기 연찬회 개최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태백시 및 정선군 일원에서 의정활동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3월 6일에는 강원랜드, 태백산국립공원, 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인 3월 7일에는 고한구공탄시장, 삼탄아트마인에 들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간의 현지시찰 동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장 상인, 지역 사업주,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사업체 및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도민들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보,뉴스쉐어 등 21개 언론사 보도

스포츠서울

2024년 03월 07일 (목)

사회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공적정보 접근성 향상



심오섭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사의 채용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약 1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과 농인 등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열악하고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고 영상과 자막 등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도내 수화언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4년 03월 07일 (목)

자치의정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 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상임

김수미 기자

도내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공적정보 접근성 향상



심오섭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사의 채용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약 1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과 농인 등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열악하고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고 영상과 자막 등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도내 수화언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수미 기자 gwnews@hanmail.net

누리일보, 뉴스쉐어 등 29개 언론사 보도

신아일보

2024년 03월 07일 (목)

지역

심오섭 강원도의회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덕경 기자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원도 산사가 모두 누락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뛰어난 가치를 지닌 도내 유산의 발굴과 등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도내 유산의 잠재력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 이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도의 경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부흥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던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가치있는 유산의 등재를 통해 관광산업의 부흥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4년 03월 07일 (목)

스포츠서울

사회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심오섭 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원도 산사가 모두 누락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뛰어난 가치를 지닌 도내 유산의 발굴과 등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도내 유산의 잠재력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 이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경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관광산업이 부흥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던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가치있는 유산의 등재를 통해 관광산업의 부흥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k4021@sportsseoul.com

명성일보, 뉴스쑈 등 33개 언론사 보도

스포츠서울

2024년 03월 07일 (목)

사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봄철 화재예방 및 취
약시설 안전사고 대책 촉구”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 국민의힘)은 ‘봄철 화재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박 위원장은 “연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해 3월부터 5월까지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적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화기 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 사항을 확인할 것과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이용이 많은 도내 글램핑과 카라반 등 캠핑장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최근 10년간(’13~’22)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강원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산불은 상반기에 집중 발생(전체 84.5%)하고, 3~5월에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1.1~6.30) : 637건(12,862.67ha) / 하반기(7.1~12.31) 117건(68.34ha)

※ 월별 : 4월 158건(1,181.93ha) → 3월 147건(7,329.95ha) → 5월 137건(1,181.93ha)
順

산불발생 원인은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다.

※ 입산자 실화 40% → 소각산불 19% → 담뱃불 실화 5% 순

최근에는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발생이 연중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 위원장은 “봄철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할 것”과 “봄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한 만큼 도민들께서는 화재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3월 07일 (목)

신아일보

지역

강원도의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봄철 화재 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사고 대책 촉구

조덕경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봄철 화재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봄철 화재예방 및 취약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박 위원장은 “연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적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화기 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 사항을 확인할 것과 봄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이용이 많은 도내 글램핑과 카라반 등 캠핑장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최근 10년간(’13~’22)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강원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산불은 상반기에 집중 발생(전체 84.5%)하고, 3~5월에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발생이 연중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 위원장은 “봄철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할 것”과 “봄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한 만큼 도민들께서는 화재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시사일보, 명성일보 등 33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 20면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선 고한구공탄시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7일 정선 고한구공탄시장과 문화예술공간 삼탄아트마인에 방문해 시장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사문위 조례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4년 03월 07일 (목)

사회

[포토뉴스] 정선군바둑협회 사무실 겸 정선기원 오픈 행사



정선군바둑협회(회장:이광호) 사무실 겸 기원 오픈 행사가 7일 정선군재향군인회 3층에서 임규선 강원특별자치도 바둑협회장을 비롯한 김기철 도의원, 강신열 정선군체육회장, 홍천식 민주평통 정선군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바둑 동호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동정 12면



원제용도
의원은 8
일오전 11
시 농업기
술센터에

서 열리는 시농업인단
체연합회 1·2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동정 27면

◇류인출강원특별자치도의



원(원주)은 8일
오전 11시 도청
신관 2층 소회의
실에서 열리는
제2회 강원도도

시계획위원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인물동정 12면



류인출도
의원은 8
일오전 11
시 강원특
별자치도

청에서 열리는 제2회
강원도도시계획위원
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1면

춘천교대 통합안 나왔다, 강원대와 추진 등 4안 제시

이주환 총장 직접 논의 일정 거론

12일 교원양성체제 개편연구 발표

4월초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학내 '대학미래 한달 내 결정 우려'

속보=강원대등타대학과의 통합 가능성 검토 중인 춘천교대(본지 2월20일 4면 등)가 본격적인 통합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학내에서는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진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결과 최근 이주환 춘천교대 총장은 학내 구성원만 열람 가능한 게시판에 '교원양성 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대학의 대응 방향 논의 일정 안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 교원 정원 감축, 입학 자원 부족 등 초·중·고교원 양성 여건이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면서 "총장으로서 이제 전 구성원이 참여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예고한 대로 우리 대학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대학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번 논의에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총장이 직접 나서 춘천교대의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당장 오는 12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에 대한 경과 보고와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이어 이달 중 직원, 학생, 교수와 연이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춘천교대 측의 계획이다.

특히 구성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향후 춘천교대의 대응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춘천교대가 구성원들에게 제안한 방향은 △현 체제 유지 △인근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 추진 △타 교대와의 통합 추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 추진 4가지다. 인근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은 사실상 강원대를 의미한다. 교대간 통합의 경우 강원지역에는 다른 교대가 없기에 수도권 교대와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전문대학원은 앞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했으나 예비교사인 교대재학생들의 반대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내용이다. 제시된 안 모두 구성원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 측은 한달여간의 논의를 거친 뒤 4월 초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대학운영위원회, 교수회, 대학평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 추진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춘천교대 A교수는 "지역사회나 졸업생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빠져있어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면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경우 몇 해에 걸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우리 대학의 추진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1면



춘천 연장 GTX-B 노선 착공 인천을 출발,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제공=대통령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춘천역~서울역 55분’ GTX-B 2030년 개통 목표 첫삽

윤 대통령, 인천 착공식 참석
“개통까지 과정 꼼꼼히 챙길 것”
원주 연결 D노선 추진 의지도
도 “신속한 사업 진행 기대감”

인천을 출발, 서울도심을 지나 경기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 “GTX-B 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



업이었다”며 “현재 경기마석에서 종착역인 GTX-B 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 광주·이천·여주,

강원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 등 착공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며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GTX-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기념식에는 GTX-B 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연장구간인 가평, 춘천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을 투입,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서울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정왕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

km를 연결할 예정이다. 마석에서 가평~춘천까지 55.7km 구간은 총 4200여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 연장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87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정부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B 춘천연장과 GTX-D 원주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언급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며 “철도망 장기계획 반영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으로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화천댐 물 용인 공급 지역민 의사 고려해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에 요청

김진태 도지사가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청을방문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화천댐 용수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 대통령 직속으로 2019년에 설치됐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며 물의 적정한 배분과 물분쟁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통상상담실에

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화천댐 용수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안’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화천댐 가용 용수(일일 110만 t) 중에 절반이 넘는 60만 t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양강댐이 수도권 물공급을 위해 50년간 희생했는데, 이제는 화천댐에 이르렀다”고 했다. 소양강댐 준공 피해를 강조하면서, 강원도 주요 수자원이 수도권 용수 공급처가 된 것에 대해 우회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법률상 화천댐 용수 사용 과정에서 강원도와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고려해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화천댐을 주수원으로, 소양강댐을 보조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한강수계 수리권(물에 대한 권리)이 불평등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법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답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도, 지역특화 도시재생 33개 사업 806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에 806억원(국비 482억원·지방비 324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업 지역은 신규 3곳을 포함해 총 33곳이다. 신규 사업은 지역특화 2건(동해시 환동해의 문화를 잇는 상권 재생 프로젝트 커넥트 송정, 평창군 ‘지

금은 대화를 청취할 시간입니다’)과 우리 동네 살리기 1건(홍천군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이다.

강원도는 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지금까지 총 39곳에 선정, 국비 39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도내 12개 시·군이 16곳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나선다. 김덕형

2024년 03월 08일 (금)

강원도민일보

종합 02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강원땅 전국 0.9% 불과

지난달 해제면적 339㎢ 중 3㎢

수도권 절반 이상, 역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강원도 면적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제 지역 또한 접경지역에 분포해 타 지자체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얻는 경제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수도권으로 쏠려 비수도권 접경지역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지난달 해제한 군사보호구역 339㎢ 가운데 강원도 면적은 3.01㎢에 불과했다. 0.9% 비율이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서울시(13.7%)와 경기도(39.6%) 등 수도권이 절반(53.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청남도(41.6%)와 세종시(3.9%), 강원도(0.9%), 충청북도(0.26%) 순이었

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익은 수도권으로 쏠리게 됐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일대 46.4㎢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경기도는 성남시(71.5㎢)와 하남시(3.65㎢), 양주시(15.6㎢) 등 8개 시·군의 134.1㎢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들 지역은 도심 내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원 3.01㎢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에 있어 수도권 지자체보다 개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군 부대가 작전상 검토를 거쳐 풀어준 경우”라며 “특별한 개발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 수요가 있고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도내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를 지속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江原日報

김진태 지사, 도정 쇄신 구상 착수

정책실장 신설 검토

오는 7월 임기 반환점을 도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성과 중심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위한 ‘도정 쇄신’ 구상에 착수했다.

특별보좌관단 전면 개편, 중규모의 실무·성과 중심 조직개편 등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 조율 및 정무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칭 ‘정책실장’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 초인 2022년 8월 12명을 임명한 특보단은 총선 출마,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일부 사임한

사례는 있었으나 추가 임명 등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도는 4·10 총선 이후 임기 후반기 2기 특보단 인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도정부부터 특보단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도정 철학의 이해도, 정무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정기인사와 동시에 임기 후반에 대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철저한 성과 위주의 과(課) 단위 개편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을 비롯해 성과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적인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일부 기능이 쇠퇴했다고 판단되는 과들은 통폐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7월부터 도내 대학을 총괄하는 RISE센터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신설되며 도청 과장급이 과전된다.

김 지사는 실·국간 현안업무를 조율하는 정책기능은 물론 정무적 기능과 기동력까지 갖춘 민원조직의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부서에서 이미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 등에 착수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종합 02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신청 의결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7일 태백과 삼척 폐광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본보 2월20일자 2면 보도)을 심의·의결했다.

강원자치도는 수백억원대 일시 지원 위주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역체질 개선 차원의 수조원대 항구적 지원이 이뤄지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7일 위원장인 김진태 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도

도 노사민정협 신청안 심의 이달 내 고용노동부에 공식 요청
지정되면 300억 국비 지원 가능... 산업위기지역도 신청 예정

와 한국노총 강원본부, 강원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이달 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

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위원들은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정성적 요건 강화 등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대규모 SOC 등 수조원대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은 4년간 2조5,889억원, 조선소 가동 중단, GM폐쇄 등의 위기를 겪은 군산은 1조4,399억원이 투입됐다.

도는 올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시 3조3,000억원,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5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에서는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사회 05면

환경부 산하기관이 기준치 초과 방류수 ‘괄괄’

설악산 생태탐방원 인제 한계천에 배출 방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 산하 기관이 오히려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에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제군 환경보호과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실시한 방류수 수질검사서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생태탐방원의 방류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항목에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 인제군에 따르면 탐방원의 방류수 BOD는 26ppm으로 기준치

(10ppm)의 2.6배를 초과했다.

더욱이 탐방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인제군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시설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군에 적발돼 지난 6월 과태료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했다.

탐방원 측은 기준치 초과 방류수가 숙박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탐방원은 하루 최대 100여명이 투숙할 수 있는 20여개실의

지난해 11월 이어 올 2월 또다시 적발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
숙박동 하수 원인 추정... 주민 대책위 구성 “악취·오염 심각” 주장

인제군 “향후 같은 문제 발생하면 더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중”
탐방원 “정화시설 업체와 점검중... 숙박영업 중단 계획 없어”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등이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하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탐방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계2리 주민들은 탐방원에서 유출된 생활하수로 인해 한계천에 이끼

와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검게 변하는 등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병호 한계천과과대책임위원장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로 한계천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업

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군도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탐방원 관계자는 “숙박 인원수의 문제라기보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용역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숙박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한계천이 검게 변하고 이끼가 낀 것이 직접적으로 방류수에 의한 것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제=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강원대병원 상급 승격 절박

-국립대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으로 의사 메워야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선거용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이유는 의사단체에서 제공한 측면이 큼니다. 국민이 희망할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의료 수요를 예측하는 여러 정책보고서를 내놓으며 의사수 확대 정책을 실행하려 할 때마다 진료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번번이 좌초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며 지역대학을 이끌어야 하는 국립대 총장,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직접 겪는 국립대병원 원장들은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장들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붕괴하는 의료환경을 걱정하며 한 목소리로 의대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인력의 유출 등으로 지역의료의 중추가 돼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지위가 흔들리는 탓입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반발을 설득하며 대폭 증원에 앞장선 것은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를 절감하고 지역대학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대뿐만 아니라 전북대·경북대 총장의 '일단 의료환경이 개선돼야 젊은 사람도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경북대다수 지역에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설명이 보여줍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 입장은 다급합니다.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되기 위해 1도 1국립대를 내세우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합쳐 통합강원대로 새출발하면서 2만명 규모의 전국 최대 정원으로 거듭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지역에 캠퍼스를 거느리게 되면서 지역수요는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강원남부지역에서는 삼척에 강원대병원 제2병원 설치로 공공의료 서비스와 산업기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의 양적 질적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실은 시도 거점 국립대 중 '상급종합병원'이 되지 못한 유일한 대학병원입니다. 23년 말 강원대병원은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수준은 제주대와 동일한 최저입니다. 강원대당국은 미래비전과 현안에 대해 교수학생이 충분히 공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의료취약지인 강원에 우선해 교육여건과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수도권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해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구축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올림픽 경기장 ‘돈 버는 하마’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모색을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6곳은 마땅한 수익 사업이 없어 연간 60억~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영비는 총 27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경기장 수입 다각화를 모색했지만, 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경기장을, 수익 발생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자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용역 결과는, 경기장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동계스포츠 경기연맹은 지난 6일 도청 제2청사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은, 강원도가 소유한 6개 동계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3곳의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용역보고에서는 하키센터와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생활스포츠 시설·테마파크 등 다목적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사용하는 슬라

이딩센터는 이용공백 기간, 일반인대상 ‘스펀지 봅슬레이’ 체험 등 수익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민간 위탁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경기장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기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도는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방안이 적용되면, 본래 경기장 시설 기능은 영구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장 운영을 개선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적자 폭을 줄인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흑자를 내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면 현상 유지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공공성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레저 파크에서부터 관광시설에 이르기까지,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추진 기업에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진 만큼,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첨단산업 육성·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옳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종합계획 초안을 내놨다. 이 계획은 강원자치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2024~2033년) 강원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강원자치도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계획 초안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강원자치도 경제의 주요 이슈는 수십 년간 변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지역 영세업자들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인력난 등등.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요된 희생, 제

조업 비중이 낮은 취약한 산업 구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등도 단골 메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강원도 푸대접론으로 연결되곤 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강원도 천혜의 관광자원에 모든 기대를 거는 관광산업 발전론으로 끝나는 것이다. 희망찬 새 출발을 얘기할 때는 제법 호기 있게 환경이다, 문화다, 복지다 하면서 그럴듯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경제 현실로 돌아오면 십수 년을 되풀이해 온 한탄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경제 현안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원자치도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은 기대가 크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더욱 정밀하게

수렴하면서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출생 심화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인구절벽 시대에 생활인구가 주요 관심사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더한 것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합해 산정한다.

강원자치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 나와
주민 의견 수렴·재원 조달 등 세부 지침 마련을
지역 방문객 선호도 조사부터 철저히 할 때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 서비스, 자원을 사용하고 생산 또는 소비생활을 해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

지역 내 여가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체류인구의 소비와 생산 활동은 지역의 상권 및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공동화, 거주환경의 악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마침 정부는 거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는 사람들을 정주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 부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여러 정책을 선보여야 하며 여기에 관광을 접목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지역의 방문객들이 어디를 찾고 있는지 실태 조사부터 세밀하게 해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초교 입학생 1만명 선 붕괴, 지역 소멸 전조인가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교 입학생 수는 9,206명이다. 지난해 입학생 1만1,047명보다 1,841명(16.6%)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4년 초교 입학생 수(1만3,697명)와 비교하면 4,491명 줄어든 것이다. 취학 대상자 급감으로 올해 강원지역 16개 초교의 신입생은 한 명도 없다. 또 예비소집 대상 아동이 1명에 불과한 학교는 20곳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역 유출 여파로 입학생이 감소하는 것은 주민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소멸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도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2023~2029년)’에서 도내 초교 1학년 학생 수는 2029년 6,840명으로 5년 만에 3분의 1가량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해마다 3,000~4,000명 정도 줄면서 2029년엔 그 수가 4만9,559명에 불과해 사상 처음으로 5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중학생 총학생 수는 2029년엔 3만2,642명, 고등학생 수는 3만5,515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초교생 수 감소세는 저출산 때문이다.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년째 하락세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5명이 줄면서 0.70명 선마저 무너졌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서 교문을 닫아야 할 학교가 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에 화천초교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교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교 흘리분교장 등 3개 분교장을 폐교했다. 다른 인구 감소 지역 학교도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학생 수 감소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떠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